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 6.89월 평가원, EBS 연계교재 완벽 반영, 2019 수능 대비 | 현자의 돌 시리즈 (2018년) 🔍

무료배송 | 특가쿠폰

임수민 (지은이) | 메가스터디교육 | 2018-09-20

【참고서 사은품! 무민 북엔드, 신발 파우치 (3만원 이상부터)】

정가 : 13,000원
 판매가 : **11,700원** (10%, 1,300원 할인) | 무이자 할부 ?
 마일리지 : 650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점 ?
 ↳ 국내도서 외 상품 포함 구매에 한함

세액절감액 : 530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 ?
 추가혜택 : 카드/간편결제 할인 ▶

이 책의 전자책 : 출간된 전자책이 없습니다. [출간알림 신청](#)

반양장본 | 26쪽 | 300*410mm | 70g | ISBN : 9791188449323

배송료 :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
 수령예상일 :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
 88.1% 최근 1주 확률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변경](#))

주문수량 : 1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택하기](#) [보관함 담기](#)

사라진 소망차
 오네스피, 헨닝 왕립 추천 마르틴 베크 시리즈 출간 #10

★★★★★ **10.0**

- * 고등학교참고서 주간 4위
- * 고등학교참고서 top100 2주
- * Sales Point : **12,740** ?
- * 읽고 싶어요 (0명)
- * 읽고 있어요 (0명)
- * 읽었어요 (49명)
- * 100자평 (3편) ✍
- * 리뷰 (46편) ✍

[이 책 구매요?](#)

[알라딘에 팔기](#) [회원에게 팔기](#)

[종고 등록 알림 신청](#)

(2018.10.14.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컬리티 모의고사,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中)

2. 본 자료는 '수능&평가원 기출 中 죽음관 문항' 모음 자료입니다.

3. 학습법:

- ① 해당 단원이 부족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 출력해서 푸세요.
- ② 모르겠는 문항은 전개년 연도별 해설(EBS)에서 학년도를 검색하여 해설을 참고하세요.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편집 및 수정된 선지, 새로 작성된 해설에 대한 2차 저작권은 현자의 돌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대답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4.9.15.번)

사회자: 선생님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상가: 삶의 목적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쾌락이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상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

- ① 영혼 불멸의 삶에 대한 약속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②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④ 고통 속에서 삶이 소멸하는 과정이므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 ⑤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9.16번)

(가)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正心].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誠意].

(나)사람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에 대해 알려하는가?

- ①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 ② 자신의 업(業)에 의해 또 다른 삶을 결정짓는 윤회의 과정이다.
- ③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기(氣)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 ④ 고통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 ⑤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다.

3.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6.11.10번)

(가)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흠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4.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6.4번)

갑: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근심하겠는가? 만물은 하나이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추악한 것을 썩어 냄새난다고 한다. 썩어 냄새나는 것이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는 법이다.

을: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삶도 아직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므로 분별되어야 한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 ③ 을: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제사 의례를 근절해야 한다.
- ④ 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로움에 힘써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4.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7.9.6번)

(가)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五蘊)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난 것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觀] 한다.

(나) 삶을 죽이고 초월하려는 자에게 죽음은 없고, 삶을 살려고 탐하는 자에게 삶은 없다. 태어나기 전의 근원을 보면 원래 삶도 형태도 기(氣)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가 생겨서 변해 형체가 되고 삶이 되었다가 변하여 죽어 가는 것이다.

- ① (가):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에서 도덕적 수행이 필요하다.
- ② (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 ③ (나): 기가 모여서 삶이 되고 기가 흩어져서 죽음이 되는 것이다.
- ④ (나):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⑤ (가), (나): 죽음은 그 근원을 성찰하고 지극히 애도해야 할 고통이다.

6.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11.6번)

(가)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새가 죽을 때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는 하는 말이 착한 법이라네. 지사(志士)는 삶을 영위하되 인(仁)을 해침이 없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을 이룬다네.

(나)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命]이니, 진인(真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태도 기(氣)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라네.

- ① (가): 도덕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
- ② (가):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는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법이다.
- ③ (나): 진인이라 해도 그의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 ④ (나):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 ⑤ (가), (나): 해탈하여 세속의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8.6.8 번)

갑: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을: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인 과정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 ③ 을: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
- ④ 을: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근거는 내세의 행복에 있다.
- ⑤ 갑, 을: 이상적 인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9.4번)

(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네.

(나) 삶과 죽음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眞人)이라 하네.

<보기>

- ㄱ. (가): 죽음은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 ㄴ. (가): 죽음보다는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ㄷ. (나):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 ㄹ. (가), (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 을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8.11.4.번)

갑: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다. 도(道)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보기>

- ㄱ. 갑: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 ㄴ. 갑: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哀悼)의 의무를 강조한다.
 - ㄷ. 을: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한다.
 - ㄹ. 갑, 을: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6.11.번)

(가) 삶도 내가 원하고 의로움 또한 내가 원한다.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의로움을 취하지 어찌 구차하게 살겠는가.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죽음조차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슬픈 일인가? 생명이란 본래 자연에서 빌린 것이니 마치 티끌과 같고, 삶과 죽음의 이치는 밤낮의 변화와 같다. 이제 우리는 그 자연스런 변화를 바라보노니, 그것이 내게 왔다고 해서 어찌 싫어하겠는가.

- ① (가) : 생(生) 그 자체가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다.
- ② (가) : 도덕적 가치가 삶과 죽음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나) :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 응보의 과정이다.
- ④ (나) : 삶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상적 인간의 경지이다.
- ⑤ (가), (나) : 죽음 이후를 대비하여 도덕적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11.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9.9.14.번)

(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죽음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운명이다. 사계절이 변하듯이 기(氣)의 변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이 바뀌는 것일 뿐이니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 오온(五蘊)의 새로운 구성이 태어남이고 그 해체가 죽음이다. 죽음은 현세의 업보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생멸(生滅)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생사(生死)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 ① (가) : 인(仁)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 ② (가) :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의 욕망을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 ③ (나) : 죽음은 고통이 없는 생(生)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이다.
- ④ (나) : 중생은 그의 오온이 해체되어도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 ⑤ (가), (나) : 참된 지혜는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후에만 얻어진다.

②①⑤②⑤
⑤④④②②
④